

추석가정예배순서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추석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후,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식사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다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인도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시편 24:1)

찬 송 310장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신명기 8:10-18 가족 중에서

10.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사십 년 동안 광야를 지나 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주시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기쁜 일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과 가족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고 형편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지만 일이 잘되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일할 건강과 지혜와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가정에는 부모와 가족들이 흘린 땀과 말없이 감당한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만큼은 서운했던 일보다 감사한 일을 먼저 기억하며 따뜻한 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사랑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은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재능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며, 아픈 마음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믿음과 사랑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은 가정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 453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웁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시편 128 : 1 - 3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찬송 : 486장

◦주기도문